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8. 26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친환경연구과장	고순보	☎ 760-7350
		업무담당자	현희정	☎ 760-7364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도내 친환경 감귤원 ‘산동날개매미충’ 분포지역 확대

- 2017년 한림읍서 첫 발견 이후 제주시·서귀포시 등으로 발견지역 확대 -

- 제주지역에서 산동날개매미충(*Pochazia shantungensis*) 분포지역이 넓어지고 있어 농경지와 주변 식물에 대한 세심한 예찰과 관리가 요구된다.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산동날개매미충 분포지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농가에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관리를 당부했다.
- 농업기술원이 2020년부터 도내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, 현재까지 산동날개매미충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다. 다만 관리가 소홀한 일부 과수원과 친환경 감귤원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으며, 최근 발견지역도 늘고 있다.
- 산동날개매미충은 2017년 한림읍 비농경지에서 도내 처음 발견됐다. 2019년 친환경 감귤원에서 피해가 확인된 이후 주로 제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관찰됐으나 최근에는 제주시 도련동과 서귀포시 토평동에서도 발견되는 등 분포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.
- 산동날개매미충은 다양한 수목에 발생하는 해충으로, 국내에서는 2012년 처음 발생이 보고됐다. 사과, 블루베리, 복숭아 등 여러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- 약충과 성충은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 생육을 저해하고, 배설물로

인해 잎 등에 그을음 증상을 일으킨다. 특히 성충은 톱니 모양의 산란기관으로 가지와 잎맥의 조직을 파내 알을 낳기 때문에 가는 가지가 마르거나 부러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.

- 연 2세대 발생하며, 9월 이후 산란된 알은 부화하지 않고 알 상태로 월동해 이듬해 4월경 부화한다.
- 농업기술원은 산둥날개매미충의 도내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, 농업인이 발생 생태와 예찰·방제 요령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
- 황색 끈끈이트랩을 1.5m 높이에 설치해 성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방제에 활용하며, 알이 산란된 잎과 가지는 전정을 통해 제거한다. 약충 발생 초기에는 고삼·넙 추출물 등 유기농업자재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
- 현희정 농업연구사는 “산둥날개매미충의 도내 분포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적기 관리가 중요하다” 며 “발생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 필요한 예찰·방제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” 고 말했다.